**캐릭터**

**베이브**

세인트 왕국의 왕자. 나이는 23. 성별은 남성. 권력과 부의 대가로 자유가 제한된 왕족임에도 권력과 부보다는 자유를 추구한다.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자신의 운명의 상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23의 나이에도 약혼이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왕과 왕족의 눈 밖에 나게 되고, 권력에서 멀어지고, 신분은 왕자이지만, 취급은 왕자가 아닌 사실상 버려진 왕자로 취급받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헤테라를 만나게 되고 베이브는 자신이 믿던 운명의 상대가 헤테라였다고 생각하며 사랑에 빠지게 된다. 헤테라가 라케시스 일족임을 알게 된 베이브는 자신의 신분을 버릴 결심을 하며 같이 도망치려고 하지만, 라케시스 일족에 의해 헤테라가 도망치지 못하고 일족에게 묶이게 된다.

라케시스 일족에게서 벗어나 어떻게든 헤테라와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수 개월 뒤 계획을 실행해 라케시스 일족이 살고 있는 곳에 잠입하지만, 아트로포스의 계략에 속아 라케시스 일족이 헤테라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라케시스 일족이 헤테라를 죽였다고 믿게 된다.

분노한 베이브는 라케시스 일족에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다. 숨겨져 있던 라케시스 일족의 터전을 왕에게 알리고, 라케시스 일족을 모조리 붙잡아 온다. 이를 계기로 베이브는 공을 인정받아 권력을 쥐게 되고, 아트로포스는 복수심에 눈이 먼 베이브를 이용한다.